

# 축제처럼 치러지는 국제출판시장

## 통독의 현장에서 본 제42회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신문중

출판협회 사업부 · 국제교류 담당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독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제42회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세계 최대규모의 도서박람회로서 전세계 판권계약의 80% 정도가 이곳에서 체결되거나 적어도 이와 관련된 상담이 진행되어 국제출판교역의 중심지로 손색이 없는 이 도서박람회는 원래 독일출판시장의 본산지인 라이프치히에서 1825년 설립된 독일서적상협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이프치히 도서박람회가 동독에 귀속하게 되자, 서독이 1949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별개의 도서박람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마침 박람회 개막 첫날인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을 선언하였고 오는 11월 14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그리고 11월 28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각각 동 · 서독 출판인서적상협회의 통합을 위한 투표를 하여 머지않아 1,200여 회원을 둔 라이프치히 출판인서적상협회와 6,000여 회원을 둔 프랑크푸르트 출판인서적상협회가 하나로 합쳐질 전망이어서 금년의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가 이곳 독일에서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이번 도서박람회의 참가규모는 90개국에서 8,492개사가 참가하였는데 개별적으로 참가한 곳이 6,208개사이고 집합전시대를 구성하여 참가한 곳은 2,284개사였다. 과거에 동구를 비롯한 공산권에서는 출판사별 참가는 거의 없이 대부분 국가관을 빌려 집합전시회 형태로 참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개방 및 자유화의 영향으로 개별적인 참가가 부쩍 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도서는 신간 113,497종을 포함하여 총 381,702종의 도서가 전시되었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참가규모와 함께 전시장 면적도 지난 해의 113,117㎡(약 3만 4천평)에서 131,171㎡(약 4만평)으로 늘어났다. 전시장 면적의 확대는 오래전부터 요망되어 왔으나 그동안 종합박람회장 임대회사와의 협상이 늦어져서 지난해인 제41회부터 실시기로 했었다. 그러나, 새로 확장되는 전시장의 설치물을 새로 준비해야하고 확장으로 야기되는 각국별, 분야별 배치의 변경에 따른 참가국의 이해관계로 한 해가 더 연기되어 금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확장된 전시장을 쓰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축이 되어 한국관의 면적을 늘려줄 것과 미국 출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4.1홀로의 위치변경을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성사되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를 타고 두가지 요구가 모두 관철되었다.

국가별 참가현황을 보면 서독이 2,274개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영국 1,086개사, 미국 690개사, 프랑스 560개사, 스위스 483개사, 이탈리아 470개사 등이었으며 금년의 테마국가로 지정된 일본은 지난해의 93개사에서 금년에 128개사로 증가하였다. 91개사가 참가한 동독은 내년부터는 독일이라는 이름으로 서독과 함께 계수될 것이다.

추가된 전시장은 1.1홀과 1.2홀이었는데, 이곳에는 작년까지 3홀에 있던 예술분야와 6홀에 있던 아동 및 종교분야의 출판사들이 배치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홀의 분야별, 국가별 배치계획도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3.0 및 3.1홀에는 관광 및 STM 분야의 출판사들과 미국의 일부 출판사들이 자리잡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관은 4.1홀에서 미국, 스칸디나비아제국, 이스라엘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국가들과 함께 위치하였다. 영국이 4.1홀, 독일이 4.0홀에 배치되는 한편, 지난해까지 4.1홀에서 미국과 함께 있던 프랑스가 스페인, 벨기에,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과 함께 6.1홀로, 이탈리아와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스, 터키, 포르투갈, 브라질이 동구 국가들과 함께 5.1홀로 옮겨졌다. 4.1홀의 일부와 5.0홀에는 픽션 및 넌픽션관계 출판사들이 있었고 6.0홀에는 학교 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배치되었다.

특별 전시회로는 6.2홀에 영국의 PAMS 그룹이 주관하는 국제인쇄 및 제본전시회, 1.1홀에 있는 국제북디자인전시회, 4.0홀의 캘린더전시회, 6.3홀의 모델서점 등이 있어서 방문하는 출판관련인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밖에 전시대를 갖출 수는 없으나 국제도서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저작권 중개업자들이 정보교류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4.0홀에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해 놓았다.

그해의 테마국가는 출판사들의 도서전시대와는 별도로 전시장 입구쪽에 있는 총회장에서 책과 관련되어 그 나라 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전시관을 마련토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어느 나라의 출판사든



관람객의 발길이 가장 잦은 미국관의 한 출판사 전시대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시간에 가급적이면 미국과 함께 배치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미국의 출판사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많은 방문객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년에 한국관이 미국과 같은 층에 배치되어 예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던 것은 좋은 예이다.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는 그 면적이 너무나 넓고 참가규모나 전시도서도 엄청나기 때문에 다 돌아보기도 힘들어 뿐만 아니라 그해에는 어떤 경향의 책들이 선을 보였다고 한마디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속에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금년에는 특히 '환경'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출판한 책들이 많이 보였다. 성인용은 물론 아동도서에서도 나타난 이 주제는 앞으로 많이 다루어질 것 같다. 또 한가지는 통독에 관한 책들이 많았는데, 지난 2년 동안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그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에 비하면 역사의 변천을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CD-ROM 등 컴퓨터출판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백과사전과 같이 부피가 크고 검색이 필요한 것을 하나의 디스크에 담아 발간하던 추세에서 모니터의 고해상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술 등 예술분야의 도서도 나와 인쇄매체에 강력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일본이 동양문화권에 속한 도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럽진출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는 분야도 바로 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출판이다.

한국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마련한 한국관에 한국출판물 종합전시대를 비롯하여 계몽사, 범문사, 예경산업사, 웅진출판, 중앙일보사, 한림출판사의 전시대가 설치되었고, 그의 개별적인 전시대를 설치한 금성출판사, 안그라픽스, API 등을 합해 모두 9개 출판사가 참가하였다. 총 144㎡(약 44평)의 한국관은 지난해의 36㎡(약 11평)에 비해 무려 4배가 커졌는데, 방문객 수나 도서판매량도 배 이상 늘어났다.

금년에는 한국관의 전시대 배치 등 전체 디자인을 안그라픽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서 적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깔끔하다는 평을 받았다. 기념품으로 준비해간 버튼과 포스터는 물론 한국도서를 영문으로 소개한 카탈로그도 방문객들이 남김없이 가져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며, 웅진출판에서 '어린이 마을'의 일부 장면을 포스터로 만든 것도 갖다놓기가 무섭게 가져갔다.

계몽사에서는 지난해 이곳 박람회장에서 이스라엘 출판사와 판권 수출 상담이 시작된 「근지근지」가 금년에 계약이 확정되어 곧 이스라엘어로 번역출판될 예정이고, 금성출판사에서도 「애니메이션 세계명작」과 「애니메이션 어린이성서이야기」 전집이 각각 벨기에에서 프랑스어로 번역출판된 데 이어 금년에는 독일, 이스라엘 등 여러나라와 상담을 진척시키고 있는 등 그동안 여러차례 직접 참가한 출판



지난해에 비해 전시공간이 4배로 확장된 한국관.

사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안그래픽스의 「한국전통문양집」 시리즈는 이미 유럽의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고정적인 수출선을 확보하고 있다. 또, 한림출판사의 「김치」를 비롯한 요리책들과 예경산업사의 「국보」, 「석굴암」, 「복식도감」과 같은 전통문화를 소개한 화집들도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6.2홀의 인쇄전시장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지원을 받은 인쇄업계에서 동아출판사, 평화당인쇄, 성인문화사, 유연상사, 유진특수인쇄, CCM광고 등 6개사가 한국관을 마련하여 참가하였다. 동아출판사 외에는 모두

가 처음으로 참가하였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이번 참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더욱 확대하여 참가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테마국가’ 행사는 지난 1987년까지는 격년으로 어린이와 도서, 종교, 라틴아메리카, 검은 아프리카 등의 주제별 특집으로 다루던 것을, 1988년부터 매년 한 나라를 주제로 정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게 된 것이다. 1988년에 이탈리아를 처음으로 하여 1989년 프랑스, 1990년 일본을 다루었다. 1991년에는 스페인이 테마국가로 결정되었다. 일본은 이번에 총 20억엔을 투자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가부키 공연과 음악회, 영화제, 미술전, 심포지움 등을 비롯한 30회의 문화행사를 프랑크푸르트 시내 전역에서 개최하고 있다. 일본특집관에서는 일본의 고서적을 전시하는 한편, CD-ROM 출판물과 HD-TV 상영을 시범보이고 콤팩트 디스크로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틀어놓고 두명의 여성 가수가 함께 가창하여 진짜 ‘가라오케’를 선보이는 등 일본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현지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은 프랑크푸르트의 독일사람들이 일본의 특집행사에 비교적 냉담하다는 평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출판계가 보여주고 있는 재력과 다양한 행사, 적극적인 홍보활동들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일본을 아시아 문화의 대표격으로 보게끔 만들고 있다면 그들은 이곳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평화상은 서독의 서적상들이 문학, 과학, 예술분야에서 평화증진에 중요한 공헌을 한 인물을 선정하여 해마다 시상하는 것이다. 평화상 시상은 1950년부터 시행되어 알버트 슈바이처, 헤르만 헤세 등이 선정되었다. 이 평화상에 선정된 인물은 후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희곡작가 바츨라브 하벨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나 당시 반체제 인사로 정부의 출국금지령이 내려 꺾석 수상하였다가 금년에 대통령이 된 것은 유명하다.

금년에는 폴란드 태생의 독일번역가로 많은 폴란드 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양국 문화교

류에 공이 큰 칼 데데치우스가 이 상을 받았다. 상금은 25,000마르크이다.

국제도서박람회에 참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출판인들이 좀 더 많이 박람회장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국제출판시장은 한마디로 안면과 신용이 교차되며 상담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도서의 수출이 빈약하다고 해서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도서를 직수입하고 번역권을 도입해오지 않는가. 출판인들이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외국의 출판인들과 출판에 관해서 논할 때 비로소 어떤 책을 만들어 수출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우리의 영세한 출판인들이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정부의 지원이 너무도 부족하고 산업계의 지원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일본이 20억엔을 외국의 한 도시에서 쏟아부을 때는 일본산업계의 많은 지원이 있었고,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가 세계 최대의 국제도서박람회로 성장하기까지는 그 나라의 산업계에서 그 도서박람회로 인한 각종 이익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4년으로 목표하고 있는 국제도서전을 무사히 개최하기 위해서는 출판계와 함께 산업계 및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요구된다 하겠다.

컬러에화집

## 돈이 보낸 편지

이익용 지음



돈이 보낸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의 메시지들. 진실은 단 한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예화 89편이 있습니다.

(150쪽 ₩ 2,800)

●칼럼집  
●고독이라는 교만  
●(212쪽 ₩ 2,500)

●에세이집  
●내 놀던 옛동산  
●(148쪽 ₩ 2,000)

●칼럼집  
●찢어진 우산으로 하늘을 가리고  
●(220쪽 ₩ 3,300)

독립대림기획  
전화 : 02-275-5296